

'비대면 거래' 20~30대 소비 트렌드 자리잡다

광주·전남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절반 '셀프 계산대' 도입
화장품 가게 '나홀로 쇼핑' 장바구니·무인 성인용품점 잇단 등장

매장에 가더라도 직원을 대하지 않고 물건을 사는 '비대면 거래'가 20~30대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대형마트는 10여 년 전부터 '셀프 계산대'를 도입해왔고, 광주·전남지역에도 프랜차이즈 형태로 무인 점포가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지난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대형마트 3사는 24개 점포의 절반이 넘는 15곳에 '셀프 계산대'를 도입한 상태다. '셀프 계산대'는 고객 혼자서 상품 바코드를 기입하고 결제, 포인트 적립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무인 계산대'이다. 대기 시간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계산원의 고용이 위태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셀프 계산대'를 도입한 홈플러스는 지역 7개 점포 가운데 광주 계림·동광주·하남점과 광양·순천점 등 5곳에서 셀프 계산대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지난해부터 셀프 계산대 후발주자로 나섰다. 이마트는 지난해 7월 동광주점을 시작으로 봉선·상무·광주점과 목포·여수·순천점 등 7

곳을 운영하고 있고 롯데마트는 수완·월드컵·첨단 등 3개 점포에 무인 계산대를 들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산하에 있던 지난 2005년 당시 고객 사생활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업계 최초로 '셀프 계산대'를 들었다"며 "현재 전국 140개 점포 가운데 88곳에 셀프 계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이후 추가 도입은 없었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에 뒤늦게 뛰어든 이마트24는 여수와 화순에서 24시간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여수지역 점포에서는 3500원의 기본 운임으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순 점포에서는 선불형 기프트 카드(POSA) 구매·이용과 갓 내린 원두커피를 즐기도록 했다.

편의점 CU(씨유)는 지난 4월 '셀프 결제'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POS(계산대) 시스템을 전국 1만3000여개 매장에 모두 도입했다.

10~20대를 대표하는 '밀레니얼' 'Z세대'가 주 고객층인 화장품 로드숍은 일찌감치 비대면 마케팅을 끌어 들었다.



편의점 CU가 지난해 11월 첫선을 보인 '셀프 결제' 기능 탑재 계산대 시스템. /연합뉴스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등 매장 일부는 고객이 사용하는 화장품 바구니에 '혼자 불게요'와 '도움이 필요해요' 등 문구를 써 분류했다. '혼자 불게요' 바구니를 고르면 고객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직원이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

점원과의 접촉을 꺼리는 고객을 위한 무인 성인용품점은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 충장로, 첨단지구 등에서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24시간 무인 자판기 형태로 운영되는 이곳은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을 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대카드가 지난 6월19~20일 20~59세 소비자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총 응

답자의 10명 중 9명 꼴(90.9%)로 비대면 거래를 뜻하는 신조어인 '언택트'(Untact)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고 대답했다. 이들 가운데 68.7%는 언택트 소비를 택한 이유에 대해 대기 시간 감소 등 '편의성'을 꼽았고 10.7%는 '판매원 접촉에 대한 부담'을 들었다.

또 '배달의 민족'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등 '언택트' 주요 가맹점 15곳의 매출을 분석해보니 2017년 1월 약 67억원에서 올해 5월 359억원으로 5배 뛰었다. 가맹점 매출 중 20대와 30대의 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8.4%, 50.7%에 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83.48 (+3.21)	↓ 금리(국고채 3년) 1.47 (-0.02)
↑ 코스닥 658.52 (+3.48)	↓ 환율(USD) 1163.40 (-4.70)

광주 건설수주 479% 급증

광공업생산 광주 2.0%, 전남 3.3% 증가

호남통계청 9월 산업활동동향

3000억원 규모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계약이 잇따르면서 9월 광주 건설수주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479.2% 급증했다. 전남지역은 여수화력단지 수주 물량이 지난해에 못 미친 영향으로 건설수주가 22.5% 줄었다.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역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광주 2.0%, 전남 3.3% 증가했다.

광주지역 출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3% 감소했고, 재고는 35.0% 증가했다. 전남지역은 출하 5.4% 증가, 재고 0.2% 감소했다.

광주·전남 대형소매점 판매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광주 판매는 5.5% 줄고, 전남은 3.8% 감소했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유행이 바뀐 영향으로 매장 판매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 건설 경기는 지난해 바닥을 칠 정도로 불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며 "전남 건설수주 부문의 경우 지난해 여전히 화력단지 주요 기업들이 2200억원 규모 기계설치 계약을 맺었지만 올해는 그만큼 규모에 못 미쳤고 지자체의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지난해보다 줄어 공공부문 건설수주도 16.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



김석기(오른쪽 두번째) 농협 전남본부장과 심사위원들이 지난 31일 열린 '2019 남도 원예작물 한마당'에 출품된 배를 맛보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 전남본부, 남도 원예작물 한마당 개최

우수 농산물 선정·시상

전남지역 원예작물 재배농가 200여 명이 모여 기술력을 겨뤘다.

지난 31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와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이날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19 남도 원예작물 한마당'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지역 시군기술센터 직원과 재배농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시군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을 통해 재배된 원예농산물이 선보여졌다.

전문 심사위원과 농협 농산물 마케터들은 이날 평가를 통해 우수 농산물을 선정·시상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자 노력하겠다"며 "대외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5월 신청 못한 근로장려금 다음달 2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말 신청이 마감됐다. 하지만 이 시한을 놓친 사람들에게 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는다.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넘기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더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재산·소득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 앱(국세청 토크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최재호 기자 lion@연합뉴스

광주은행, 3분기 누계 당기순이익 1394억원

송중욱 행장, 혁신·지역밀착 현장경영 통한 질적성장 성과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사진)은 2019년도 3분기 누계 당기순이익(공시기준) 1394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NIM(순이자마진) 2.46%, 고정이자여신비율 0.59%, 연체비율 0.53%로 은행권 최고수준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지속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다양한 지역과의 상생 전략을 바탕으로 광주·전남지역 밀착경영과 고객중심의 현장경영으로 내실있는 질적 성장을 추진한 결과다. 또한 지역 자금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 공공금고 유치에 있어서도 목포시와 광주 광산구에 이어 광주 서구 금고 운영까지 맡게 되는 등 잇따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은 송중욱 행장 취임 이후 끊임없는 혁신경영과 현장경영을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 1535억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광주은행 최초



송중욱 행장

의 자행출신 송행장은 '세일즈 퍼스트' '미래 경쟁력 확보' '상생과 동행' 세가지 핵심 경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고객 중심 은행' '직원이 행복

한 은행'을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구심축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같은 송 행장의 노력은 최근 지자체 공공금고 신규 및 재계약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내 관시시장 마케팅 강화를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데 큰 성과를 냈다. 수익추구만이 아닌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다한다는 가치추구에 대한 송 행장의 평소 철학이 빛어낸 결과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상품 및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의 영입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20일 창립51주년 기념일에 맞춰 서민금융에 특화된 포용금융센터 개점식을 갖고 지역민의 금융으로 상담과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지역민께서 보내 주신 무한한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조밀한 영업망을 바탕으로 공공자금을 기업 및 지역민에게 집중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맥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남은 지자체 금고 선정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전남의 대표 은행이자, 뿌리 깊은 향토은행, 기초체력이 가장 강한 은행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